

주간 무역리뷰

2008. 3. 31, No.306

금주의 무역리뷰

- ▶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과 시사점
 - >>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은 첫째, 전통적 제조업 중시 사상 속에 많은 장수(長壽)기업들이 기술축적과 인재 양성에 진력하고 있음
 - >> 국내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허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 구축과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이 필요

Trade Focus

- ▶ Focus 1 :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과 시사점 2
- ▶ Focus 2 : 러시아 경제호황·소비붐과 시사점 6
- ▶ Focus 3 : 2008년 주요국간 지역무역협정 23건 타결 전망 10
- ▶ Focus 4 : 원-달러환율, 이번 주 993.0원으로 마감 14

세계 경제 Briefs

- ▶ 최근 브라질의 경제통상정보 15

통상정보 FTA News

- ▶ 뉴질랜드, 인도에 FTA 추진 제안 16
- ▶ 말레이시아, 미국과의 FTA 서두르지 않을 것 16
- ▶ 페루-중국, 예비협정에 서명 예정 16

Market Watch

- ▶ 외국어 걱정을 씹 씻어주는 링고 보이저 번역기 17

주요 경제지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35-72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801호
TEL : 02-6000-5174~7 FAX : 02-6000-6198 홈페이지 : <http://iit.kita.net>

Focus 1**일본 중소기업의 장점과 시사점****1. 일본 중소기업의 역할 및 비중**

- ※ 전후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90년대초 거품 붕괴 후 10년간의 장기불황 극복과정에서 또다시 주역을 담당
- 특히 일본 전체 사업체 수의 99.2%, 근로자 수의 79.4%, 부가가치의 53.2%를 점하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
 - 일본 중소기업은 80년대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소재·부품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더욱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 후방(상류)산업에 속하는 소재·부품산업이 조립(하류)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핵심 역할 담당
 - 요코하마에 위치한 야마노우치제작소와 오사카의 하드록이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정거장 생명과학 실험시설용 부품과 풀리지 않는 너트를 각각 공급할 정도로 일본의 소재·부품산업은 세계적 경쟁력 보유

〈일본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2004년 기준)³⁾〉

	사업체 ¹ 수 (만개)	근로자 수 (만명)	수출액 ² (조엔, '06년)	출하액 (조엔, '06년)	부가가치 (조엔, '06년)
전체(A)	571.0	5,184.5	69.5	314.6	107.6
중소기업(B)	568.4	4,117.6	10.0	150.1	57.3
비중(B/A,%)	99.2	79.4	14.4	47.8	53.2

주 : 1. 사업체(Establishment : 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 또는 단일 통제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공장 개념). 한편 기업체(Enterprise)는 동일 자원에 의해 소유·통제되는 경영 단위로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본사 개념)

2. 수출액은 공업제품 기준

3. 사업체·근로자는 전 산업 기준, 출하 및 부가가치 근로자 4인 이상 제조업 기준,

자료 : 일본 총무성 사업소·기업통계조사, 경제산업성 공업통계조사, 재무성 무역통계, 중소기업청

2.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 및 유지 배경

- ※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은 첫째, 전통적 제조업 중시 사상 속에 많은 장수(長壽)기업들이 기술축적과 인재양성에 진력하고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창업 100년 이상의 기업은 1만 5천207개사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 10.6년과 극명한 대조
- ※ 둘째, 고객제일주의를 바탕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등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남
- ※ 일본 중소기업이 강점을 확보한 배경에는 첫째, 고유의 장인정신 즉, ‘좋은 물건 만들기(모노즈쿠리)’의 계승 및 발전이 자리함
 - 모노즈쿠리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반복된 제품 제작을 통해 문제점의 발견 및 대응 과정 속에서 기능을 기술로 승화시키는 것. 수 만개의 부품이 결합되는 자동차 등 통합형 산업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는 일본 제조업 특유의 조직 능력을 의미
 - 일본 정부는 2005년 지속적인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의 하나로 ‘모노즈쿠리 국가전략 비전’을 채택. 2006년 ‘중소기업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고도화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실시
 - 금형, 주조, 도금, 용사(溶射) 등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20개 특정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강화
- ※ 둘째, 일본 중소기업은 경기침체기에도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
 - 2000년 일본기업의 도산 건수는 1만 9,071건으로 거품 붕괴 후 가장 많았으나 R&D 투자액은 16조 2,893억 엔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7% 증가
- ※ 셋째, 글로벌화의 파고 속에 독자 능력만으로 생존이 어려운 시대를 맞아 기업중 중소기업간 자신의 전문영역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경영활동을 펼치는 협업(신제휴)을 강화

- 일본 정부도 중소기업의 협업사업 지원을 위해 2005년 5월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을 제정 시행
- ※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전략도 일본 중소기업의 강점 유지 배경
- 도요타자동차는 협력업체들의 엔지니어를 도요타 본사에서 훈련시키는 ‘게스트 엔지니어링제’를 통해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

3.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 ※ 일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단카이세대(1947~49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른 가업승계 문제, 고용 애로 및 인재난, 생산성 저하 등은 우리 중소기업도 똑같이 겪고 있는 해결과제
- 이에 대해 일본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법 개정, 정년 연장 및 고령근로자 활용 확대, 중소기업의 ‘자립형 인재’ 육성,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실시 등으로 대응
- ※ 현재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선진국 수준의 75%에 불과한 기술경쟁력, 후발국의 맹추격, 원자재 등 대외변수에 대한 취약성 등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
- ※ 국내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허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 구축과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이 필요
- 일본 제조업 부활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근원인 ‘모노즈쿠리’의 심층 연구 등을 통해 우리 상황에 적합한 체질강화전략을 마련
- 현재 중앙부처에만 1,500여개에 이르고, 부처간 칸막이식 시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재조정이 시급

-
- ※ 또한 중소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부상한 협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정책의 보완도 필요
 - 현재 협업자금 융자지원은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는 기업간협력(협동화)사업 자금을 속해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는 대상이 되기 어려움
 - 기업간협력사업 자금을 포함한 협업을 독립적인 정책자금으로 분리,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
 - 또한 전문컨설턴트의 부족 등으로 협업체 구성단계까지로 제한된 컨설팅 범위를 일본의 사례처럼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사후관리 등 전 경영활동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 최근 주물, 레미콘의 공급 중단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는 아직 뿌리내리지 못해 원부자재와 납품가의 연동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실질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
 - ※ 고유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에 중요한 가업승계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7년말에 마련한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보완도 필요
 - 상속세제 개편에서 피상속인의 최소 사업영위기간을 종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은 기업 현실과 괴리
 -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영위기간이 10.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피상속인의 최소 사업영위기간을 10년 이하로 축소 필요
 - 일본은 상속 후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고용을 80% 이상 유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하는 개편안을 마련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또한 가업상속자가 기업의 성장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경우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유인책도 필요
-

▶ 문의 : 국제무역연구원 김용태 연구위원(☎6000-5155, dragon@kita.net)